

허경환, '놀뭐' 고정 욕심에 무리수 투척...인중 땀 폭발

등록 2026.01.17 18:05:00



[서울=뉴스스] 이종희 기자 = 개그맨 허경환의 '주목 울렁증'이 발동한다.

17일 오후 6시3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는 유재석이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 '심표, 클럽'의 겨울 나들이가 그려진다.

공개된 사진 속 '심표, 클럽' 2차 정모 현장에 모인 회원들은 수다를 떨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허경환만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계속해 '놀면 뭐하니?'에 출석 중인 허경환은 고정 멤버가 되고 싶은 욕심을 드러냈던 바. 유재석은 "고정 됐다 치고 원~투"라며 애매한 상황을 정리했고, 허경환은 찡찡함이 가시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이에 허경환은 활약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토크 차례가 올 때마다 긴장한다. 인중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수염이

돌아 난 허경환의 모습이 포착되고, 하하는 허경환이 어떻게 토크를 받아칠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낸다.

허경환은 자신에게 관심이 주목되자 초조한 나머지 무리수를 투척한다. 무리하는 허경환에 현장은 웃음 바다가 된다. 주우재는 허경환의 놀라운 유행어 침투력에 “급하니까 너무 쓰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응해, 현장을 뒤집어놓은 허경환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유재석은 차 안에서 정준하가 던진 애드리브가 재미 없자 벌칙을 내린다. 유재석이 정한 노잼 벌칙에 모두가 긴장해, 과연 어떤 벌칙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놀면 뭐하니?’는 이날 평소보다 5분 앞당긴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